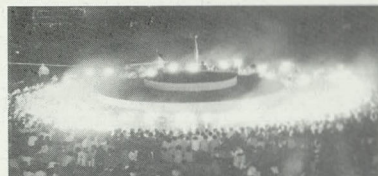


# 5.18 민주항쟁



청소년 민주주의 평화 역사체험 캠프 자료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오월의 역사와 마주 서  
민주주의 · 평화의 미래와 만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 왜 우리는 오늘 다시 5·18민중항쟁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명확하게 국군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날 우리나라 군대는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일부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저지른 군사반란 범죄에 동원되어 국민을 학살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다시 반복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군사쿠데타와 국민 학살의 비극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파시즘 체제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독재의 차디찬 질곡이 온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머리가 길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범죄자로 파출소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교련복을 입고 몇 시간씩이나 맹벌에 차려져 자세로서 있다 쓰러지는 학생들은 애국심이 부족한 학생으로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모여 초등학교들도 조롱하는, 하나마나한 간접선거로 뽑았습니다. 그 같은 유신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말 한 마디라도 입 밖으로 내뱉으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정보기관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받은 다음 살해당했고, 거기다 독재정권이 간첩임을 자백하고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낙인찍혀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만행도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만과 광기의 역사는 늘 우리 바로 옆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이 눈을 떠 깨어 있는 역사의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는다면 독재와 폭압의 가시뿔은 언제고 다시 고개를 내밀고 부활할 것입니다.



도청 진압을 위한 계엄군의 탱크 진주. 18대의 탱크가 위압을 가하며 광주로 들어오고 있다.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저 단순히 앉아서 얻어진 유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얻어진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같은 희생과 헌신 가운데 특히 1980년 광주 5·18민중항쟁은 일부 정치군인들의 정권 찬탈 음모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들고 일어나 군사쿠데타와 학살에 저항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이정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난날의 이야기나 과거와의 대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삶 앞에 마주선 생생한 현실이며 오늘 현재와의 긴장된 대화입니다. 우리가 5·18민중항쟁을 마주보고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5·18민중항쟁은 도저히 반복되어서는 안 될 오늘의 거울이자 오늘 날까지도 지속되는 생생한 현실이며, 우리는 다름 아닌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숙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5·18민중항쟁이란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계엄령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청년과 광주시민들을 공수부대를 앞세운 신군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촉발된 광주민중항쟁은 가장 처참한 군사독재정권의 학살참극이자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이정표였다. 시민군은 항쟁기간동안 무자비한 계엄군에 맞서 총칼로 무장하였으나 강도·절도 등의 범죄 하나 발생하지 않아 민주화운동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은 오랜 유신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주역량의 결집이었으며 이후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횃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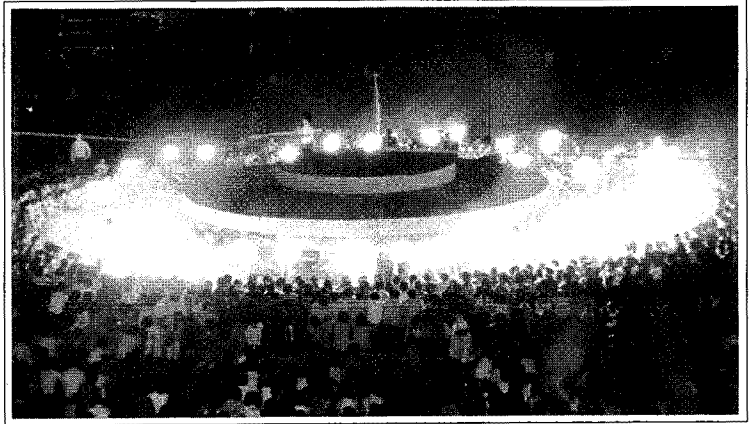
## 5·18민중항쟁의 발생 배경\*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집착하였고 솟구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저곡가 저임금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으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압살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그칠 줄 모르고 전개되었다.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자신의 심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군부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 온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일당은 오히려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를 틈타 자신들의 집권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다음, 당시 분출되고 있던 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잠재우기

\* 이 글은 5·18기념재단에서 발간한 『5·18민중항쟁 사적지 자원봉사단 안내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민족, 민주화 성화가 끝날 무렵,  
촛불 시위를 시작하기 위해 밝  
히려는 촛불이 도청분수대를 환하  
게 밝히고 있다.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세력과 야당의 정적을 제거해야 했다. 그 재물이 광주였다.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곳이며 야당의 정적 중에서 가장 많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던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 전라도 광주였던 것이다.

전라도 광주는 70년대 박정희 개발 독재 때부터 희생양이었다. 철저히 소외되었고 경제에서는 낙후되었으며 우리 민족을 다시 동서로 가르는 지역감정의 불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장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며 투쟁해 온 민주투사의 고장이었다.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학살만행에 맞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시민 전체가 일심동체로 저항하였던 것은 정신적 측면에서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든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피의 진압으로 5·18민중항쟁은 끝났지만 그 후 청년학생을 비롯한 양심적인 민주인사들과 민중운동에 의해 전두환 일당은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졌고 항쟁의 정당성은 온 천하에 입증되기에 이르렀다.

## 5·18민중항쟁의 의의

5·18민중항쟁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자발적인 민중운동의 소산이다. 조선말기의 갑오농민혁명, 일

제 강점기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민족해방투쟁,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학생혁명 등의 정신을 이어받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항쟁이었던 것이다.

5·18민중항쟁은 깨어있는 민중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 그리고 평등 세상을 향한 사회진보 운동의 일대 전환점으로 자리 잡았다.

5·18민중항쟁은 당시에는 피의 진압으로 패배하였지만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신체제를 계승한 제5공화국 정부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증거가 되었다. 결국 국민들은 불법적인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정치군부 세력을 심판하였으며 마침내는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맞선 민중의 자위적 무장 항쟁이 국민저항권의 적극적 행사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5·18민중항쟁 시기의 수준 높은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훌륭한 모범이자 압제에 저항하는 세계 진보적인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경이로운 민중항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5·18민중항쟁은 저항과 단죄를 넘어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인류 역사의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켜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 부마항쟁과 유신체제 붕괴의 서곡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의 시민,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반독재투쟁을 벌였다.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된 것에 자극을 받은 부산대생들이 유신철폐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벌이고 이어 거리로 나오자 시민들이 대규모로 합세하여 유신철폐, 독재타도, 야당탄압중지 등을 외치며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경찰력이 무너지자 유신정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



고 공수부대를 투입, 무력 진압했으나 시위는 마산으로 번져 갔다. 마산대생과 경남대생을 선두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경찰에 맞서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19일 저녁에는 수출자유지역의 노동자까지 합세, 시위가 기층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일을 기해 위수령을 선포하고 무력 진압한 결과 이틀간의 마산시위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불씨는 10·26사태를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 유신체제 붕괴와 신군부의 등장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사건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갈등이 폭발한 정치적 돌발사태였다. 유신체제는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군사독재체제였다. 국민들은 1978년 1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게 더 많은 지지표를 던졌고 김경숙의 죽음을 부른 YH여공농성사건, 야당총재 의원직 제명사건, 부마항쟁의 폭발 등 그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다. 유신정권의 말기 권력내부의 암투와 맞물려 1979년 10월 26일 18년간의 장기 집권을 누리온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사망함으로써 마침내 유신체제는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실제로 등장한 신군부와 구군부 사이에 군권장악의 권력투쟁이 야기되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이용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무력 점령하는 12·12 하극상 군사쿠데타를 성공시켜 반대세력을 강제 전역시키고 12·12 군사반란 세력을 규합, 권력을 장악했다.

## 서울의 봄과 5·15서울역 시위

1979년 10·26사태 이후 '서울의 봄'은 신군부의 유신연장 음모에 의해 안개정국 속에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1980

년 3월 신학기부터 각 대학에 학생회와 평교수회가 부활되고 긴급조치로 쫓겨났던 해직교수와 제적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함으로써 학원민주화 열풍이 일기 시작했다. 노동자들도 노조 민주화,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27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힘의 응집을 위하여 집회와 가두시위를 일제히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5월 14일 광화문, 종로 등에 5만여 명, 15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학생, 시민 20만 명이 운집하여 계엄철폐, 민주화 추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지도부는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17일부터 정상수업을 받으면서 시국을 관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계엄사령부는 학생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음을 타서 5·17비상계엄확대조치를 선포함에 따라 그 동안 용솨음쳤던 민주화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 5·17내란과 계엄군의 광주투입

1980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진압하고 정권장악을 목적으로 일부 정치군인들이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단행하였다.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시내 주요 지역마다 공수부대 병력이 투입되어 시민들을 향한 무자비한 진압이 시작되었다.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및 옥내의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대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정치인의 손발을 묶고 학생과 기층민중의 투쟁에 쐈기를 박은 데 이어 18일에는 김대중, 김종필 등 26명의 정치인을 학원, 노사분규 선동과 권력형 부정축재혐의로 연행하고 김영삼을 연금시키는 등 정치적 탄압을 감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취해진 불법조치였다. 비상계엄의 확대에 따라 전북 금마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부대가 17일 저녁 10시경 광주에 투입되어 전남대, 조선대, 교육대 등에 진주하였다.

## 최초 충돌, 전남대 정문 앞

5·17비상계엄 전국확대로 휴교령이 내려진 전남대 정문 앞에서 5월 18일 10시경 등교 중이던 전남대생들과 출입을 제지하는 계엄군사이에서 최초 광주항쟁의 단초가 제공되었다. 무장 계엄군의 통제에 항의하는 학생 수는 삼시간에 100여명으로 불어났고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엄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등교를 원하는 당연한 권리였고 평화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시위였다.

교문 안에 있던 공수부대는 메가폰을 통해 두어 차례 해산을 종용한 후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을 향해 돌진해 와서는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둘렀고 현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머리가 깨지고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잔인한 진압이었다. 5·18민중항쟁의 최초 충돌이자 과잉진압의 시작이었다. 공수부대는 달아나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 인근 주택을 뒤지기도 하고 이를 저지하는 시민들까지 구타하였다. 이런 공수부대의 포악한 만행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은 가두시위를 벌였고 이것이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전개되었다.

## 시민의 분노와 저항, 금남로

5월 18일 오전 전남대 정문 앞에서 벌어졌던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시내에서 가두시위를 하자 계엄군은 오후 3시부터 시내로 투입되어 진압하기 시작하였다. 계엄군은 무력 진압행위를 만류하는 노인들과 아주머니들에게도 무차별 곤봉세례를 가했다.

계엄군의 진압작전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진상을 알기 위해 금남로로 몰려들었다. 19일 오전 2~3천명으로 불어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군경의 저지선과 대치하게 되었다. 군경과 시민의 충돌이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나서 11공수여단 천여 명이 트럭 30여대로 도청 앞과 금남로에 진출하여 작전명 '화려한 휴가'라는 말 그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진압봉으로 무차별 구타하였고 3~4명이 한조가 되어 시위현장의 주변 건물까지 살살이 뒤흔으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만행을 목격하고 전해들은 광주시민들은 맨주먹 또는 몽둥이, 각목을 들고 나와 결사 항전하였다.

## 항쟁의 확대와 첫 발포

5월 20일 항쟁 3일째, 오전에는 소강상태였으나 오후가 되면서 광주 시가지는 다시 팽팽한 대치국면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시장의 상인들까지 철시하고 시위에 나서기 시작하여 그 인파는 10만여 명이 넘었다. 윤상원 등 사회운동 진영에서 계엄당국의 거짓된 선무방송에 맞서기 위해 만든 『투사회보』가 시내도처에 수천 매씩 뿌려지면서 항쟁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격분한 택시기사들이 200여대의 차량으로 시위를 감행함으로써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시위군중들의 전의에 불을 질렀다. 시내 곳곳에서는 자발적인 시위대가 형성되었다. 밤 11시경 광주역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와 시위대의 공방전이 격렬해지고 시위대가 차량을 앞세워 군의



광주에 재진입한 계엄군은 시내 도처에서 젊은 사람들은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도 붙잡아 총부리를 겨누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무차별한 총격에 희생된 시민군들의 시신과 관이 함께 널브러져 있다.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저지선을 돌파하려하자 군은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시민을 향한 공수부대의 최초 발포였다. 비슷한 시기에 세무서 앞과 조선대 부근에서도 발포가 있었다. 발포에도 아랑곳 않는 항쟁의 불길은 그 승리의 절정을 향하여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다.

## 신군부의 잔학한 만행

공수부대에 의해 최초로 희생된 김경철은 공용터미널에 다녀오다 공수부대원들에게 붙들려 무수하게 구타를 당한 채 트럭에 실려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김경철은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농아였다. 이는 수백 명의 사망자, 부상자 중의 한 예에 불과하다.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도 무수히 저질러졌다.

시민들 앞에서 어린 여학생들의 옷을 찢고 발가벗기는 만행을 보고 격분한 장노년층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공수부대를 몰아내자는 결사적 항쟁의지로 발전했다. 신군부의 만행은 잔혹하기 짝이 없었다. 전남대 교내에서는 학생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시신을 암매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연행되어 온 시민들을 교도소 안에서 구타, 사망케 하여 암매장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계엄군의 만행은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의 스피커

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민들을 향해 일제히 집단 발포함으로써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 계엄군의 퇴각과 양민학살

5월 21일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었다. 광주시민들은 어제의 참상을 뒤돌아보고 계엄군의 만행에 항의하기 위해 아침부터 금남로로 모여들었다. 오후 1시 계엄군은 시민을 향하여 사격을 하였다.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던 시민들 수십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다. 이때부터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느꼈고 서둘러 무장하기 시작했다.

거센 항쟁에 밀린 계엄군은 퇴각하면서도 무차별로 발포하여 사상자를 내고 조선대 뒷산을 넘어 화순의 길목인 주남마을로 철수했다. 전남대에 주둔하고 있던 계엄군은 교도소로 퇴각했다. 시 외곽지역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27일 광주진압작전인 '충정작전'에 투입될 때까지 광주 외곽도로를 차단, 봉쇄하고 인근을 지나는 차량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또한 송암동으로 이동하던 계엄군과 그 곳에 주둔하고 있던 전교사 병력간의 오인사격으로 군인들이 희생되자 그에 대한 화풀이로 원재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중학생에게 총질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청년들을 끌어내 학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 무장시민군의 등장

5월 21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총격에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자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느꼈다. 일부 시위대는 화순, 나주, 해남, 영암 등 시외지역으로 진출해 광주의 참상을 알렸다. 전남의 여러 지역에서 응원 시위부대가 왔다. 광주시위의 진압에 동원되어 텅 빈 지서,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에

서 M1소총, 카빈소총, 기관총과 탄약, 화순광업소의 TNT까지도 날라져왔다. 이들 무기들이 시민에게 지급되면서 이른바 '시민군'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싸움은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격전으로 전개되었다. 최신식 무기의 정예부대와 비조직적이고 낡은 무기로 무장한 시민군의 싸움이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광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혈전을 벌였다.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전개된 시민군과 계엄군과의 시가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군은 자발적인 지도부를 만들어 무기조작법과 무기관리 등 무기소지자의 통제를 실시되었고 일반 차량을 통제하는 등 시민군의 활약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 시민공동체의 발현

항쟁 5일째 되는 22일,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하고 어지러운 거리를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등 질서를 회복해가기 시작했다. 시장과 상점들도 문을 열고 전기, 수도 등은 관련 공무원의 지원으로 해결되었다. 많은 부상자들 때문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헌혈자가 잇따랐고 황금동 아가씨들까지 자청하여 헌혈에 나섰다.



광주 시민들은 십시일반 거둔 쌀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제공하였다.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치안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은행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으며 금은방 등 일반 상점에도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시민군과 항쟁지도부의 식사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시민군 지도부에서는 차량통행중, 유류발급중, 상황실출입중 등을 발부하는 한편 외곽지대 자체 방위를 맡은 시민군과 유대를 갖고 지원하기 위해 기동타격대를 편성, 출동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높은 시민정신과 도덕성, 자치능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인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시민군 지도부에서는 차량통행중, 유류발급중, 상황실출입중 등을 발부하는 한편 외곽지대 자체 방위를 맡은 시민군과 유대를 갖고 지원하기 위해 기동타격대를 편성, 출동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높은 시민정신과 도덕성, 자치능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 수습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5월 22일 거센 시민의 항쟁에 밀려 계엄군이 일시 퇴각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엄청난 사태 앞에서 쌍방 모두 슬기로운 수습이 요망되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5·18수습대책위원회'였다. 이 조직은 명망가이자 민주인사로 알려진 신부, 목사, 변호사, 교수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었고 이와 달리 항쟁의 선봉에 선 학생들 중심의 '학생수습대책위원회'도 출범하였다. 민주인사나 유지급 중심으로 구성된 수습위에서는 주로 계엄당국과의 대화나 건의, 협의 등을 맡았고 학생 중심의 수습위에선 대민 업무를 맡아보았다. 그들은 장례반, 홍보반, 차량통제반, 무기수거반, 의료반 등으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또한 계엄사에 요구한 7개항의 요구조건을 홍보하고 300여정의 무기를 회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사의 무성의와 그들의 각본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무기회수 문제도 수습대책위원회의 의견 불일치로 결국 무기반납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는 새로운 항쟁지도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 민중항쟁의 확산

5월 18일에 발발한 민중항쟁의 소식은 언론보도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전남 일원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일 오후와 19일에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행해진 무자비한 계엄군의 살상행위는 시외버스 승객들에 의해 퍼져 나갔다. 또 시위대중 일부가 아시아 자동차공장의 차고에서 차량을 대거 획득 운행하면서 도내 각 지역에 직접 알리고 용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광주의 항쟁은 전남 일원의 호응 속에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5월 21일의 집단발포 소식은 전남도민의 의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이에 화순, 나주, 영암, 강진, 무안, 해남, 목포 등 전남 일원으로 확산되었다. 시위대는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 등 전국적인 진출을 시도했으나 고속





도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차량을 불태우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시민들.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도로와 철도를 철저히 봉쇄한 계엄군에 의해 좌절되었다. 광주는 목마르게 응원군을 기다렸지만 전남 이외의 지역과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 시민군의 결사항쟁

5월 26일 새벽 계엄군이 탱크 등 중화기를 앞세우고 농촌 진흥원 앞까지 진출하자 수습대책위원들은 일명 ‘죽음의 행진’을 감행하여 무력진압을 저지 만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작전의 예고였다.

저녁 7시 계엄군의 침공이 감지되는 가운데 학생지도부에서는 시민군에 참여하고 있던 고등학생이나 여성의 귀가를 종용했다. 시민군들은 비장한 가운데 마지막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항복이나 죽음이나, 민중항쟁의 결전에 서서 전열을 가다듬으며 홍보부에서는 계엄군의 침공사실을 가두방송으로 알렸다. 27일 새벽 4시, 도청 주변에서 총성과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가 울려왔고 도청탈환을 향한 계엄군의 기관총 소리는 밤하늘을 찢는 듯 했다. 구식 무기로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지도부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갔다. 진압 끝! 그리고 시민군 생존자는 시체더미 속에서 ‘총기소지자’ ‘특수폭도’로 분류 체포되어 군부대로 이송되었다.

## 신군부의 무력진압

수습위의 건의사항도 묵살되고 대화도 평화적인 해결도 거부당한 채 폭동을 일으킨 총기소지의 폭도로 지목된 시민군들은 죽거나 부상당하였고 생존자는 모두 체포되어 군부대로 끌려갔던 5월 27일 새벽, 공수부대원들은 시체더미 위에서 승리가를 합창하며 총정작전을 끝냈다.

도청탈환을 목표로 조직된 특공대는 27일 새벽 1시 30분을 전후로 조선대학교 뒷산에서 최종점검을 마친 뒤 시내 주요 지점을 향해 잠입, 침투하기 시작했다. 또 시 외곽에서도 시내 중심가를 포위한 채 시민군을 압박해오고 있었다. 전화선은 모두 끊겼고 탱크 지나가는 소리만 금남로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새벽 4시가 지나면서 도청표적은 탱크와 중무장 헬기, 자동화기와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시민군 말살 초토화작전이 전개되었다. YMCA, 계림초등학교도 총검과 군화발 아래 유린되었다. 작전개시 1시간 30분 만에 도청진압이 완료되면서 열흘간에 걸친 1980년 5월의 민중항쟁도 참담한 최후의 막을 내렸다.

## 5·18민중항쟁의 부활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폭도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광주시민의 의로운 항거는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으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당시 광주는 총검 앞에 유린당했으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었다.

폭도는 광주시민이 아니라 헌정을 유린한 반란자 신군부 그들이었다. 의로운 광주, 외로운 광주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5·18민중항쟁의 진상을 알리는 민주인사와 학생들의 5월투쟁이 시작되었다. 투쟁의 선두에 선 유가족들의 소복투쟁은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목시적 배후조종자 미국에 대한 반미의 불길은 광주와 부산에서 미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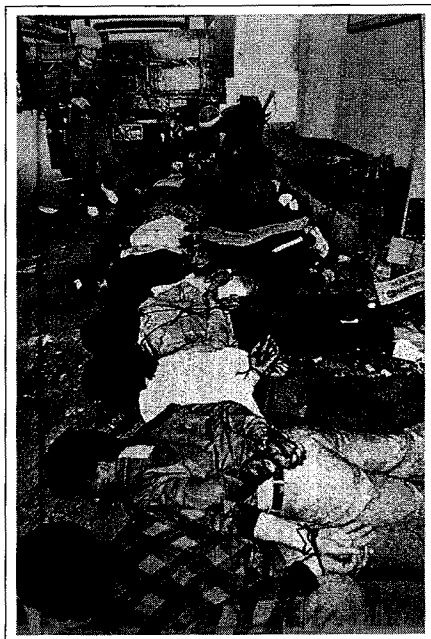
원이 불타고 서울의 문화원이 점거당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같은 투쟁은 마침내 6월항쟁으로 이어져 신군부 세력들은 6·29선언으로 항복했고 1988년 5공 청산을 위한 '5공 비리특위'와 '광주청문회'가 열렸으며 '역사바로세우기' '전노 일당 사법처리'가 이루어져 광주항쟁은 명명백백하게 정의로운 민주화운동의 의거로 부활, 승리하게 되었다.

## 연행 구금과정의 잔학상

5·17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실시와 함께 이루어진 예비검속으로부터 항쟁기간과 그 이후에 연행된 사람에 이르기까지 광주항쟁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수천을 헤아린다.

광주의 전 지역을 쑥밭으로 만들고 초토화시킨 토벌작전 그대로였다. 항쟁기간 중 난데없이 들이닥친 계엄군은 집, 사무실, 학원, 도서관, 식당, 시위주변의 길거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을 총 개머리판과 곤봉 등으로 구타하여 트럭에 실어 교도소나 상무대로 연행하였다.

심지어 팬티바람으로 줄줄이 묶어 폭도취급을 하였다. 전남대나 광주역 부근에서 붙잡힌 사람들은 전남대 본관과 이학부 건물에 수용했다가 21일 3공수여단이 교도소로 철수할 때 함께 이송되었다. 또한 상무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상무대 안의 교회와 연병장의 임시막사에 수용되었다. 굵주림과 구타, 비좁은 공간에 몇 백명씩 공동 수감되는 등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날의 참상을 두고 사람들은 “나는 그때 인간이 아니었다.”고 회상한다.



공수부대에 붙잡힌 시민들.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 죽음과 삶의 갈림길

상무대로 붙잡혀온 많은 사람들은 상무대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며 짜여진 각본에 맞춰 내란음모 선동 등의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다. 특히 신군부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상 연관이 없는 김대중과 관련한 내란음모 조작이라는 각본 수사가 이루어졌다. 김대중으로부터 폭동자금을 얼마 받았느냐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잔인한 고문, 구타, 심지어 같은 동료끼리 때리게 하는 비인격적 모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고문이나 구타를 당한 사람들은 석방이 된 후에도 오랜 시 일동안 후유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정신 질환을 앓다가 사망하는 등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들은 풀려난 후에도 엄청난 공포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다.

##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이 사건은 5·18민중항쟁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해 신군부 세력이 조작한 사건이었다. 공수부대의 무차별 사격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5월 21일 저녁, 신군부 세력은 TV를 통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하였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광주사태는 간첩 김대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광주지역 불순분자들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선동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이며 김대중으로부터 거사자금을 받은 정동년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학원소요사태를 민중 봉기로 유도 발전시켰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동년은 광주상황이 발발하기 전인 5월 17일 저녁에 예비 검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5·18민중항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신군부 세력은 12·12군사반란을 통한 정권장악을 목적으로 김대중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인들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 상무대의 군사재판

상무대의 범정은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던 구속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급조되었다. 당시 군부는 5·18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에 총으로 무장한 헌병을 입장시켜 놓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비공개로 421명의 구속자들을 약식재판으로 진행하였다.

각본에 의한 수사, 각본에 의한 형식적 군사재판이었다. 구속자들은 재판시작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합당한 절차가 무시된 군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며 항의표시로서 소리 높여 애국가를 불렀다. 또한 구속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일부 정치군인들의 권력찬탈을 위한 양민학살 만행을 폭로하며 언젠가는 5·18의 진상이 밝혀져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 모두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하였다.

## 진실규명을 위한 처절한 투쟁

5·18민중항쟁이 신군부에 의해 무력 진압된 후 전 국민은 암울한 침묵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다. 5·18학살책임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구속자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구명운동과 함께 부모자식을 잃어버린 유족들, 부상자들은 신군부 정권에 맞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5·18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광주항쟁의 진압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미문화원 등을 방화하거나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반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부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민주화를 위해 분신투쟁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6월

항쟁 이전까지는 5·18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조차 경찰의 방해로 치를 수 없었고 일반 국민들의 5·18묘지 참배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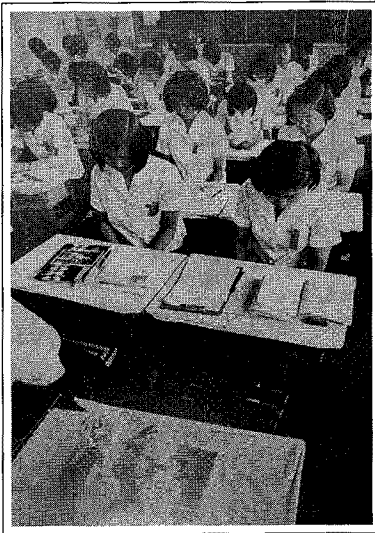
## 5·18특별법 생취와 5·18의 진실

1988년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 왜곡 은폐되었던 5·18민중항쟁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추모제 등 5월 행사가 합법적으로 거행되었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학살책임자 처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사에 의한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학생, 지식인들의 철야농성과 항의성명이 빗발쳤고 학살책임자 고소고발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문민정부는 잘못된 과거 청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국민적 요구에 밀려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군부 세력에게 역사와 법과 정의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5·18민중항쟁에 대한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주인없는 책상 위에는 꽃 한송이만...  
1980년 5월, 5·18기념재단 제공

## 5·18광주민중항쟁과 미국

1980년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은 존. A. 위컴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연합사령관은 전문을 접수했음을 확인한 후 “귀하의 요청을 승인한다(Your request is approved)”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신군부는 5월

20일 20사단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광주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로 보내도 되겠느냐”며 연합사에 부대이동을 문의하자 위킴은 미국정부와 협의한 후 동의(agreed)함으로써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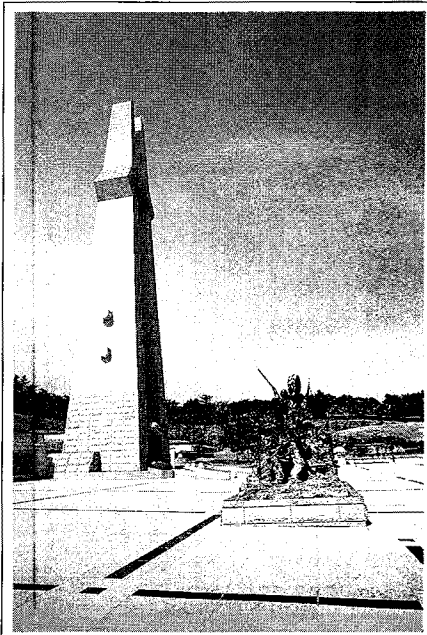
한편 5월 22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정책조정위원회(PRC)는 오키나와에 있는 조기경보기 2대,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중인 코럴시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미행정부는 “광주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고 일반국민에게 광주민중항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켜 신군부를 두둔했고 무력진압을 합법화시켰다.

## 5·18정신과 인권

군사정권의 가혹한 탄압 아래 오랫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국민들은 1980년 광주를 통해 학교 교과서로는 몇 십 년 걸려도 깨닫지 못한 진정한 인권에 눈을 뜰 수가 있었다.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권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창조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어두운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광주는 항쟁의 대명사로서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제3세계의 민중, 인권운동에 강력한 변혁의지를 심어주는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5·18광주민중항쟁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저항으로 출발,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정의를 위한 자기희생과 반인륜적 학살에 저항하는 세계적 인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5·18민중항쟁 추모탑

## 세계 속의 5·18

5·18민중항쟁이 돋보였던 것은 항쟁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리고 구속되는 암울했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독재투쟁에 나섰으며, 마침내 제3세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출발시켰다는 점이다.

항쟁의 생생한 현상이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군부의 부도덕성과 부당함을 여과없이 알렸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진압 책임자가 권력을 장악한 참혹한 상황에서도 '5·18 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범국민적 저항으로 승화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 제2의 광주 공동체정신을 탄생시켰다.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배상이라는 5대 원칙은 필리핀의 민중혁명과 태국,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대만의 계엄령 해제 및 민주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고 동구의 민주화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항쟁이 기폭제가 된 한국의 민주화는 제3세계 민주화의 모델로 정립되고 있으며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출국으로써 입지를 굳히고 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시 김중률 곡



사 . 량 도 명 . 예 도 이 품 도 남 김 없 이  
 동 . 지 는 간 데 없 고 것 . 발 만나 부 껴



한 평 생 나 가 자 던 뜨 거 운 맹 . 세  
 새 날 이 올 때 까 지 혼 들 리 지 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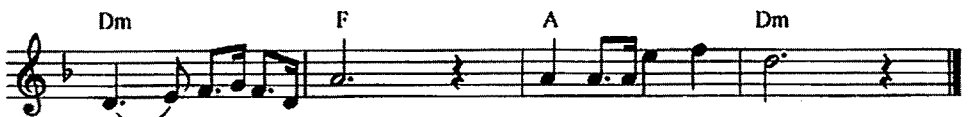
세 월 은 훌 러 가 도 산 천 은 안 다



깨 어 나 서 외 치 는 뜨 거 운 함 성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 자 여 따 르 라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따 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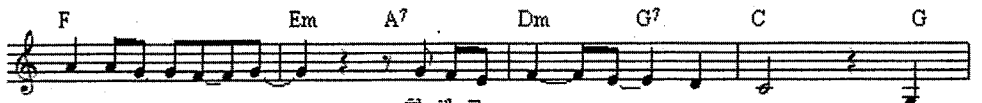
# 화해로 평화로 통일로!

- 2001 민족공동행사 주제곡

김정환 글 윤민석 곡



이제 지긋 지긋-긋-한 - 미움의 시대는  
전쟁의 공포는 끝났-어 - 우리모  
련단의 설움은



두 손 맞-잡-고 - 화해로  
평화로 합-께-가-요 자  
통일로



마 음 을-엮-어 - 손에 손을 잡-아-요 - 화



해 - 로 - 평 화 - 로 - 통 일 의 새 - 날 - 로 - 우



리 의 후-손-이 - 더 볼 어 사는-세-상 - 합



께 - 가 - 요 One KO - RE - A



## 5 · 18 희생자 이야기

김 경 철 29세, 장애인 노동자 | 묘지 1-01

화려한 작전의 첫 희생자는 불행하게도 장애인 노동자였다. 그는 4살 때 바위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가 마비되면서 3개월이나 병원생활을 하였다. 농아학교에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과정을 독학으로 끝낸 그는 서울에 있는 계명양화점에서 착실하게 기술을 배워 80년에는 광주에 내려와 국제양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농아처녀와 결혼해 80년 1월에 딸 혜정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에게 5월 18일은 악몽의 마지막 날이었다. 김경철씨는 서울에서 내려온 처남이 영암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버스터미널에 배웅을 나간 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는 금남로 제일극장 들어가는 골목에서 공수부대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버렸다. 농아신분증을 보여주고 악쓰며 몸부림치는 그를 계엄군은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기만 했다. 친구들은 손도 못쓰고 숨어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말 못한 것이 죄가 되어 세상을 떠났다. 뒤통수가 깨지고, 왼쪽 눈알이 터지고, 오른쪽 팔과 왼쪽 어깨가 부서졌으며 엉덩이와 허벅지가 으깨져 죽었다. 온 몸이 두부처럼 으깨진 것이다.

“차라리 총에 맞아 죽었으면 편히라도 갈 것인데, 온 몸이 터질 때 겨 정 맞아 죽다니, 불쌍한 내 새끼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한 것도 불쌍한디 맞아 죽다니…….” 어머니 임금단씨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한다.

아들이 죽은 후 어린 혜정이를 버려둔 채 부인은 친정으로 가버리고

혜정이는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컸다.

**김 인 태** 48세, 농업 | 묘지 1-04

해남에서 농사를 짓던 김인태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밀린 하숙비를 내기 위해 19일 광주에 왔다가 농사일이 바빠서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터미널에서 공수부대에 붙잡힌 그는 전남대로 끌려가 구타로 사망한 후 21일 교도소 앞 야산에서 시민군들에게 발견되었다.

**강 복 원** 22세, 운수노동자 | 묘지 1-09

대한통운 트럭 기사인 그는 21일 오후 6시 광주시민이 다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버스를 운전하며 친구들과 가다 송암동 남선연탄공장 앞 도로에서 총격을 받고 어깨에 총을 맞아 버스가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숨졌다. 형 승원씨는 동생 시신을 보고서 헛소리를 하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 83년에 숨졌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강씨 집안은 이제 대가 끊기고 말았다.

**김 복 만** 29세, 운수노동자 | 묘지 1-14

현대교통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김복만씨는 18일부터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며 항쟁에 적극 참여했다. 광주민중항쟁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킨 20일 저녁 차량시위에 참여한 그는 그러나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때 숨을 거뒀다. 당시 그는 3살 먹은 아이와 1개월 된 갓난아이의 아버지였다.

**김 완 봉** 15세, 중학생 | 묘지 1-18

무등중학교 3학년인 김완봉군은 단신 월남한 송도영씨의 독자였다. 21일 부처님오신날 어머니 송도영씨가 절에 가던 길을 포기하고 시민군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돌아온 사이 집을 나갔다가 도청부근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어머니는 그 뒤 딸의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박 금 희** 18세, 학생 | 묘지 1-26

5월 21일 헌혈을 호소하는 방송차량을 보고 기독교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조대에서 퇴각하던 계엄군의 총격에 배를 맞고 기독교

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8남매 중 막내딸인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실업계인 전남여상에 다니고 있었는데 때로는 교통비가 없어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등·하교를 했고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한 날도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교 성적도 우수하였고 선도부장을 맡을 정도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였으며 음악을 좋아하여 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낭만적인 성격의 학생이었다. 친구들은 87년까지도 7월 13일이 되면 금희가 누워있는 묘지 가까운 산 속에서 경찰들 눈을 피해 숨어서 생일파티를 해주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바친 그는 아마도 그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애뜻한 마음 속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다.

**안 두 환** 28세, 노동자 | 묘지 1-34

보일러 수리기사인 안두환씨는 전남대 정문에 있는 집에서 공수부대에 게 두 딸이 보는 앞에서 곤봉으로 머리를 구타당하며 선혈이 낭자한 채로 전남대로 연행되었다가 30일 교도소에서 암매장된 채로 발견되었다.

**조 사 천** 35세, 건축노동자 | 묘지 1-57

조사천씨는 전남대 후문에서 집을 짓고 있었다. 18일 학생들이 맞는 것을 보고 항쟁에 참여해 21일 도청에서 목에 총을 맞고 눈을 뜬 채 숨졌다. 부인 정동순씨는 화병으로 뱃속에 명율이 생겨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조사천씨 어머니는 87년 5·18 사진전에 손자가 아들 영정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 3일간 식사 한번 못하시고는 숨졌다.

**최 미 애** 25세, 주부 | 묘지 1-60

“여보! 당신은 천사였소.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남편이 부인을 떠나보내며 비석에 피눈물로 새긴 이별가이다. 임신 8개월이던 최미애씨는 5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남편을 기다리다 전남대 정문 쪽 도로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친정 어머니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갔는데 딸이 뇌 속의 골과 피를 길바닥에 쏟아 놓은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딸을 집으로 옮겨 놓고 배를 만져보니 몸은 차가운데 태아는 아직도 살아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아이라도 살려보려고 여러 병원에 연락을 했으나 아무도 와 주질 않았다. 그렇다고 죽은 딸을 신고 병원을 찾아다닐 수도 없었는데 20분쯤이 지나자 아이도 엄마 곁으로 떠나고 말았다. 가족들이 손수레에 관을 싣고 장례식을 하였다. 최미애씨 어머니는 혼자 된 사위를 자신이 나서 중매결혼을 시켰다. 재혼한 사위는 두 딸을 두어 함께 살고 있다.

**민 병 렬** 32세, 운수노동자 | 묘지 1-76

택시운전을 하던 그는 20일에도 여느날과 같이 출근했다가 계엄군이 도로를 막아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자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것이 가족과 마지막이었다. 98년 이영희씨는 뜻하지 않게 민병렬씨의 사망경위를 듣게 되었다. 5·18 부상자 이영희씨가 민병렬씨의 아내임을 알고 같이 구급됐던 그 때 상황을 말해주었다. 80년 5월 21 새벽 광주역에서 시민들의 결사항전에 밀린 공수부대는 전남대로 도망가 잡혀온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공수부대 한 명이 대검을 들고 “이 대검은 월남 여자 유방을 40개나 자른 것이다.”며 한 사람을 불러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그리고 민병렬씨 뒤로 돌아가 대검으로 정수리를 찔렀다. 순간 피 분수가 솟았고 골이 나왔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시체를 두 명의 공수부대원이 끌고 나갔다.

**손 옥 레** 20세, 제일약품 대기발령 중 | 묘지 1-80

손옥레양은 희생자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며 가정파괴도 가장 비극적으로 이루어졌다. 21일 스무 살 꽃다운 나이의 손옥레씨는 대검에 왼쪽 젖가슴이 찔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70센티 박달나무 진압봉으로 두들겨 맞아 온 몸이 두부처럼 짓이겨지고 아랫배에는 수십발의 총탄세례를 받고 숨졌다. 남동생 손병석씨 또한 공수부대에게 두들겨 맞은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다 딸마저 끔찍하게 죽자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결국 술로 아픔을 달래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자주 호소하던니 1981년 9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도 딸 때문에 충격으로 몸져누워 있다 남편이 죽자 가슴앓이가 심해져 1986년 12월에 딸과 남편 곁으로 갔다.

**임 정 식** 20세, 실업자 | 묘지 1-88

22일 집 근처 찻등에서 시민들과 함께 항쟁에 참여한 그는 총탄에 외삼촌이 다리를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달려 나가려 하자 어머니를 가로막고 자기가 뛰어나가다 가슴에 총을 맞고 외삼촌 곁에 쓰러졌다. 그는 어머니를 살리고 대신 세상을 떠났다.

**고 영 자** 24세, 일신방직 노동자 | 묘지 1-96

고영자씨는 화순에서 태어나 많은 농촌 누이들이 그러했듯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마치고 일신방직에 다니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집으로 보내며 어렵게 생활하는 성실한 처녀였다. 18일 공장이 문을 닫자 같은 회사 동료이자 동생인 김춘례씨 집에서 5일 동안 함께 있다가 23일 춘례의 할아버지 제삿날에 같이 가자고 졸라 집을 나섰다가 지원동 부근에서 계엄군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83년에 김운수씨(화순 능주에 있는 누나집에 가다 23일 지원동에서 총에 맞아 사망)와 영혼결혼식을 시켜 나란히 묻어 주었다. 어머니는 가슴앓이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다 84년에 세상을 떠났다.

**장 재 철** 24세, 이발사 | 묘지 2-08

의료반에 들어가 차를 운전하며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던 그는 지원동 벽돌공장에 부상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구하러 갔다가 그와 함께 총에 맞아 숨졌다.

**윤 상 원** 31세, 노동운동가 | 묘지 2-11(윤개원)

윤상원 열사는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의리가 강했다. 임곡초등학교를 마치고 광주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닌 그는 1971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가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 75년 복학했다. 민청세대인 학교선배 김상윤씨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77년 9월 김상윤씨가 녹두서점을 열자 이곳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다졌다.

졸업 후 그는 광천동 빈민촌 셋방에서 남동생과 자취를 하며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고민하다 7형제의 장남으로서 돈 잘 버는 직장을 잡아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마음먹고 78년 1월 서울 봉천동 주택은행에 들어갔다. 당

시 은행은 최고 직장이었으나 그는 봉천동 빈민촌에서 살았다. 그의 집은 학생운동을 하는 후배들이 경찰에 쫓기는 몸으로 찾아오곤 하는 단골 은신처였다.

그러다가 윤상원은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광주로 돌아와 학력을 속이고 광천공단 한남 플라스틱에 들어갔다.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노동자 생활을 하며 전남대 휴학생 박기순씨가 중심이 되어 만든 들불야학에 적극 참여, 노동야학을 이끌었다. 들불야학과 박기순씨와의 만남은 그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인연이었다. 교육지표 사건으로 강제휴학을 당하고 노동운동에 헌신해 '노동자의 누이'로 불리던 박기순씨는 78년 겨울에 연탄가스로 숨지고 82년 두 사람은 영혼결혼식을 올려 지금은 5.18묘역에 함께 누워 있다. 두 사람을 위한 노래가 바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시작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당연하게도 광주항쟁 초기부터 적극 앞장섰던 그는 계엄군 퇴각 이후 민주시민투쟁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맡아 시민군의 총기교육에서부터 선전일까지 맡아가며 항쟁을 지도하였다. 그는 27일 새벽 계엄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당시 도청에 있던 300여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과 고등학생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 27일 새벽 도청을 사수하고자 남은 시민군들은 밀려오는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많은 시민군들이 총상을 입었고, 윤상원 열사 역시 도청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항쟁 전 기간동안 가장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다간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다.

#### 항 호 결 21세, 노동자 | 묘지 2-13

조선말 항일 의병활동을 한 할아버지를 모신 자긍심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황호결씨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정의감과 의협심이 강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남이 싸우기만 해도 꼭 나서서 말리는 성격이었고 친구들이 많았다. 그는 형의 대학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직업훈련원에 들어가 자격증을 따서 화천기공사에 근무하며 광주일고 부설 방송통신고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21일 도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항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가 총을 들고 집에 오자 놀란 가족들이 총을 빼앗아 농 속에다 숨겨 뒀다. 22일 아침밥을 먹고 나서 아버지가 “총을 돌려주고 오라”고 하여 집을 나섰으나,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고 말았다. 그는 23일 12명의 사람들과 봉고차를 타고 화순 쪽으로 가던 중, 주남마을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의 집중사격을 받고 숨졌다.

**박 연 옥** 51세, 농업 | 묘지 2-17

송암동에서 농사를 짓던 박연옥씨는 전남중학교에 다니는 막내아들이 걱정되어 24일 동네 아주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다 도로에서 공수부대가 총을 쏘아대자 청년과 함께 광주대 입구 하수구로 몸을 숨겼으나 이를 발견하고 쫓아온 공수부대의 총탄에 아랫배를 맞고 쪼그린 채 하수구에서 숨졌다. 이날 공수부대는 계엄군과 오인 총격전이 벌어져 군인 9명이 죽자 전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송암동 주민들에게 분풀이를 저지른 것이다. 다행히 공수부대에게 발견되지 않아 살아남은 아주머니 말에 따르면 박연옥씨는 피를 흘리면서 갈증을 느낀 듯 하수구 물을 손으로 마셨다고 한다. 부인을 잃은 남편은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다 2년 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남도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다 마흔 둘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갔다.

**방 광 범** 14세, 중학생 | 묘지 2-18

24일 오전 11시 지원동에 주둔했던 공수부대는 27일 작전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주민들은 공수부대에게 물을 주는 등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진월동을 지나면서 주택가에 총격을 가했다. 12시 40분쯤에 광범이는 10여명 친구들과 원제부락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총소리에 놀라 몸을 피하던 그는 친구들이 “광범아 엎드려” 하고 소리치는 순간 총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아버지 방두형씨는 아들의 머리가 날아가고 없다는 말에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오후에 동네 청년들이 야산에다 아버지도 모르게 물어줬다.

이를 후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저수지를 지나서 정신 없이 야산으로 갔다. 야산에서 방광범씨의 묘를 찾으려 돌아다니는데 공수부대가 총을 겨누었다. 함께 간 외가 아주머니하고 아내가 “아들

이 죽어 묘 찾으러 왔다, 총 쏘지 마라”고 막았다. 아버지는 밥도 못 먹고 술로 고통을 잊으려고 했지만 결국 정신분열증까지 생겨 부인과 이혼하고 말았다. 신군부는 행복했던 가정을 이렇게 깨뜨리고 말았다.

**전 재 수** 11세, 초등학교 1학년 | 묘지 2-22

효덕초등학교 4학년이던 재수군은 평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였다. 그 당시 아버지는 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집에서 쉬고 있었다. 24일 재수는 밖에서 놀다 들어와 점심을 먹고 여동생과 장난하며 놀았는데 시끄럽다는 아버지의 야단을 듣고 재수는 “밖에서 친구들과 놀겠다”며 나갔다. 아이들이 마을 앞 선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놀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총소리를 듣고 선산 위쪽에 있던 아이들은 재빨리 숨었다. 그러나 아래에 있던 재수는 선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다 9일전 어머니가 생일선물로 사준 신발이 벗겨져 신발을 주우려고 돌아서는 순간 공수부대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자식이 죽고 나서 아버지는 술이라도 먹고 잊어버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밥도 안 먹고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4년 뒤에 아들 곁으로 가고 말았다.

**김 동 수** 23세, 대학생 | 묘지 2-27

조선대 공대 3학년이던 그는 불교학생연합 전남지부장으로 불교 운동을 하고 있었다. 18일 오전 목포에 내려가 있던 그는 21일 오후 광주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차를 타고 올라와 항쟁기간동안 활동하던 중 도청에서 목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김 부 열** 18세, 고등학교 1학년 | 묘지 2-29

조대부고 3학년이던 그는 19일 학교에 다녀와 “조선대 앞에서 군인들이 여대생을 붙잡아 속옷만 입혀놓고 토끼뽀를 시키더라”는 얘기를 하며 몹시 열을 냈다. 20일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휴교령이 내렸고 이때부터 그는 항쟁에 참여했다. 시민군이 된 그는 지원동 야산에서 주택가에 총격을 하고 있던 공수부대에 쫓기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는 주남 마을 부업산(녹동마을 앞산)에서 머리와 왼팔이 잘려 암매장된 채 발견되었다.

……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과 함께 한국 사회 발전의 두 가지 정신적 기둥 가운데 하나인 민주화 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6월 28일 제정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29일, 민간기구(행정자치부 등록)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속된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리 사업과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 및 민주발전 지원 사업,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및 학술 조사 연구 사업 등이 기념사업회가 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대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체계화하여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의 삶과 문화 속에 내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지키며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과 미래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태평로2가 43 신동아화재빌딩 2·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16  
<http://www.kdemocracy.or.kr>



# 제 2 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예공모전

## 평화와 자유, 인권, 통일 등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문예작품을 공모합니다.

### ■ 응모부문 및 형식

- 글: 독서감상문, 수필, 시
  - 독서감상문 및 수필
    - 초등부 (원고지 5매 이상), 중등부 (원고지 13매 이상)
    - 고등부 (원고지 18매 이상), 일반부 (원고지 20매 이상)
  - 시
    - 초등부 (동시 3편), 중·고등부 및 일반부 (시 3편)
- \* 독서감상문 추천도서는 홈페이지를 참조
- 그림: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판화, 유화, 컴퓨터그래픽, 일러스트
  - \* 단, 컴퓨터그래픽과 일러스트는 8절 출력본 1매와 CD 1장에 제출

- 만화: A4 용지 (매수 제한 없음)

### ■ 응모기간

2003년 4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 ■ 발 표

2003년 7월 21일

### ■ 시 상

- 국무총리상 1점
- 행정자치부장관상 1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1점

### 초·중·고

- 으 품 상: 부문별, 대상별로 각 1명 (총 15명)
- 비 금 상: 부문별, 대상별로 각 2명 (총 30명)
- 복돋음상: 부문별, 대상별로 각 2명 (총 30명)
- 좋은글상: 부문별, 대상별로 각 5명 (총 75명)

### 일반부

- 최우수상: 부문별 각 1명 (총 5명)
- 우 수 상: 부문별 각 2명 (총 10명)
- 장 려 상: 부문별 각 2명 (총 10명)
- 입 선: 부문별 각 5명 (총 25명)

### ■ 보 낼 곳

-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신동아회계빌딩 3층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 E-Mail: gongmo@kdemo.or.kr

### ■ 제출요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cracy.or.kr)에 게재되어 있는  
응모신청서 1부와 응모작을 동봉하여 보내주시시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없는 분들은 응모자 이름, 학교명,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민족문학작가회의

협찬 - 삼성생명